

12/8/19

설교 제목: 빌라도의 선택

전하는 이: 김순배 강도사

말씀: 마가복음 15 장 1-15 절

- (막 15:1)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 주니
- (막 15:2) 빌라도가 묻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 말이 옳도다  
하시매 **절관주** 마 27:11
- (막 15:3)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 (막 15:4)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 (막 15:5)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 (막 15:6)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 주는 전례가 있더니
- (막 15:7) 민란을 꾸미고 그 민란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 (막 15:8)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한대
- (막 15:9)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 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 (막 15:10)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 준 줄 앎이러라 **절관주** 1 요 3:12
- (막 15:11)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 달라 하게  
하니 **절관주** 행 3:14
- (막 15:12)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이를 내가  
어떻게 하라
- (막 15:13)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 (막 15:14)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이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 (막 15:15)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 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 주니라 **절관주** 마 27:26, 요 19:16

지금까지 생생하게 기억에 남는 70 년대 광고 카피가 있습니다.

'순간의 선택이 10 년을 좌우합니다'

금성(지금의 LG) 하이테크 칼라 비전 TV 광고에 등장했던 광고 카피입니다.

이 광고 카피를 50 여년이 지난 지금까지 기억하고 있는 것은 이 말에 그만큼 공감을 한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끊임없는 선택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우리의 인생을 좌우합니다.

순간의 선택에 따라 성공한 인생이 될 수도 있고 실패한 인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하는 선택 중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겠지만 특별히 신앙의 선택은 아주 중요합니다. 다른 선택들은 아무리 중요한 선택이라 할지라도 백년 남짓 사는 세상 삶에만 영향을 미치는데 반해 신앙은 우리의 영원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본문은 유대 총독이었던 본디오 빌라도가 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인생을 망친 것은 물론 사도신경에까지 이름을 남겨 수 천년 전 세계 크리스찬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수모를 겪게 된 계기가 된 사건입니다.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본디오 빌라도는 성경에 기록된 인물 중 가장 불명예스러운 이름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본문을 보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산헤드린 공회에서 예수님의 사형을 확정된 후 예수님을 결박하여 빌라도 앞으로 끌고 갔습니다.

(막 15:1)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 주니

대제사장들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한 밤중에 무리들을 겿세마네 동산으로 보내어 예수님을 붙잡아 대제사장 집으로 끌고 오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불과 몇 시간만에 산헤드린 공회에서 사형을 확정짓고 새벽에 유대 총독 빌라도에게 넘겼습니다.

이것은 엄연한 불법입니다.

산헤드린 공회는 의장인 대제사장, 10 명의 제사장들, 60 명의 장로들 총 71 명으로 구성된 이스라엘 최고 종교 기관이었습니다.

공회의 규정은 개인의 집에서 모일 수 없었고 또 밤에 모일 수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사형 같은 중대 결정은 절대로 밤에 모여서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 밤에 모여 예수에 대한 사형을 확정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불법을 범한 것입니다.

당시 유다가 로마 제국의 속국이였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공회인 산헤드린에서는 사형을 집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형 집행은 오직 로마 정부만이 할 수 있었습니다(요 18:31).

그런 연고로 대제사장들은 예수를 유대 총독 빌라도에게 끌고 갔던 것입니다.

유대 총독 빌라도는 예수를 심문했습니다.

(막 15:2) 빌라도가 묻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 말이 옳도다 하시매

사실 빌라도 자신도 이 점이 궁금했습니다.

빌라도는 이 예수라는 사람이 기적도 많이 행하고 놀라운 가르침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몰고 다녔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던터라 이 사람의 정체성에 대해 알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은 간략하게 “네 말이 옳도다”라고 대답하십니다.

그러자 빌라도가 다시 묻습니다.

(막 15:3)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막 15:4)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막 15:5)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대제사장들은 여러가지 이유를 들어 예수를 고발했는데 그중에서도 특별히 예수가 자신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한다고 고발했습니다.

예수가 정치적으로 아주 위험한 인물임을 부각시키려 했던 것입니다.

예수가 자신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 황제를 모독한 것이고 로마에 반란을 일으킨 것이나 진배없으니 사형을 시키라는 것입니다.

대제사장들이 이렇게 정치적인 이슈를 들고 나온 데는 나름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종교적인 이슈로 기소하면 로마 법정에서 먹히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 법정에서 어필할 수 있는 정치적인 이슈를 꼬집어 내어 기소한 것입니다.

빌라도는 예수가 자신을 가리켜 '유대인의 왕'이라고 한 것이 판결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기에 예수에게 변명할 기회를 주려고 했습니다.

보통의 사람들은 이같은 상황에 처하게 되면 많은 변명을 늘어 놓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무 변명도 않고 그냥 침묵하십니다.

빌라도는 침묵하는 예수를 보고 그가 비범하다고 느꼈습니다.

(사 53:7)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음이여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 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은 왜 침묵하셨을까요?

예수님은 당신이 죽기까지 고난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과 고난 뒤에 영광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참 소망과 신뢰를 두고 사는 사람은 비록 당장은 괴롭고 힘들지라도 참고 견딜 수 있습니다.

공의의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께서서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악인을 심판하시고 의인을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심문을 마친 빌라도는 예수에게서 아무런 죄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막 15:10)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 준 줄 앎이러라

빌라도는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시기해서 고소한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런 일에 휘말리기를 원하지 않았기에 어떻게 하면 이 일에서 슬쩍 빠질 수 있을지를 놓고 고민했고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누가 복음에 그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눅 23:4)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눅 23:5)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눅 23:6)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물어

(눅 23:7)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 때에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눅 23:8)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 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연고러라

빌라도는 예수가 갈릴리 지역에서부터 소동을 일으켰다는 말을 근거로 예수를 당시 갈릴리 지역을 관할하고 있던 분봉왕 헤롯 안디바(안티파스)에게로 보냈습니다.

헤롯 왕도 그 동안 소문으로만 듣던 예수를 오래 전부터 한 번 만나 보기 원했던 터이고 또 혹시 예수가 이런 상황에서 무슨 이적을 행하지 않을까 내심 호기심이 발동하기도 했습니다.

헤롯 안디바 왕은 세레 요한을 죽인 왕입니다.

헤롯 안디바 왕은 "동생의 아내를 빼앗아 결혼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지적인 세레 요한을 달갑게 여기지 않아 그를 잡아다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동생의 아내였다가 자신의 아내가 된 헤로디아의 딸이 그의 목을 요구하자 딸의 청을 받아 들여 결국 세레 요한을 죽였습니다.

빌라도는 이 골치 아픈 문제를 헤롯 왕에게 떠넘겼습니다.

그러나 헤롯 왕은 예수로부터 아무런 답변을 듣지 못하자 예수를 다시 빌라도에게 돌려 보냅니다.

(눅 23:9)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눅 23:10)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발하더라

(눅 23:11)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눅 23:12)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이제 공은 다시 빌라도에게로 넘어 왔습니다.

빌라도는 고민 끝에 한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당시 유대 명절이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 주는 전례가 있었는데 이 전례를 들어 예수를 풀어 주면 되겠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막 15:6)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 주는 전례가 있더니

(막 15:7) 민란을 꾸미고 그 민란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막 15:8) 우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한대

(막 15:9)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 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러나 무리들은 의외의 반응을 보입니다.

(막 15:11)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 달라 하게 하니 무리들은 예수 대신 강도요 살인자이며 민란을 일으킨 바라바를 놓아 달라고 했습니다.

빌라도가 무리들을 설득해 보려고 시도했으나 무리들은 완강합니다.

(막 15:12)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이를 내가 어떻게 하라

(막 15:13)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막 15:14)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이나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막 15:15)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 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 주니라

빌라도는 아주 계산적인 사람으로 전형적인 정치가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진리를 택하기 보다는 무리를 택했습니다.

무리를 선택하는 것이 자신의 정치적 생명을 연장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가 결백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무리가 원하는데로 바라바는 놓아 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 주었습니다.

빌라도는 비열한 선택을 택한 것입니다.

그는 예수의 결백을 말하면서도 예수에게 사형을 집행하도록 했습니다.

그는 유대 총독의 자리를 지키고자 진리를 저버리고 인기와 명성을 추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처절히 세상적인 욕망을 추구하면서 살았던 그의 삶은 결국 자살로 마감되었다는 설이 있습니다.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너무 허무하고 너무 비참합니다.

거우 그런 종말을 맞으려고 진리를 외면하면서 결백하신 예수님을 죽게 내어준 것입니까?

사실 요한 복음을 보면 빌라도에게는 진리에 대해 알 기회가 주어졌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진리에 대해 관심이 없었고 그 기회를 놓쳐 버리고 말았습니다.

(요 18:35)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네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요 18:36)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요 18:37)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요 18:38)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나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빌라도는 오직 자신의 정치적 출세와 성공에만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바로 옆에 두고도 진리를 아는데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는 넓은 문과 좁은 문이 있습니다.

우리는 넓은 문과 좁은 문 이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빌라도와 같이 넓은 문을 선택합니다.

좁은 문으로 가는 길은 좁고 힘들어 인기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좁은 문을 선택하라고 하십니다.

좁은 문은 우리를 영광의 길로 인도하지만 넓은 문은 우리를 멸망의 길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좁은 문을 선택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용기와 믿음이 절대 필요합니다.

믿음없이 아무렇게나 살다가 갑자기 선택의 순간이 왔을 때 좁은 문을 선택하기란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매순간마다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훈련을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넓은 문으로 가는 길은 당장은 좋을지 몰라도 결국 죽음의 길이며 멸망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좁은 문으로 가는 길은 비록 당장은 힘들고 인기가 없는 고난의 길이지만 진리의 길이고 최후 승리가 보장된 길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좁은 문을 선택하여 최후 승리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